

# 신라왕경 성곽의 현황과 조경학적 차원의 연구방향\*

김형석\* · 심우경\*\* · 이원호\*\*\* · 안계복\*\*\*\*

\*고려대학교 대학원 ·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실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 Present Condition of Fortress of Silla Capital and Research Direction on Landscape Architecture

Kim, Hyung-Suk\* · Sim, Woo-Kyung\*\* · Lee, Won-Ho\*\*\* · Ahn, Gye-Bog\*\*\*\*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Landscape Architecture Program, Korea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ABSTRACT

Gyeongju, Silla capital, hasn't paid much attention to a value of fortress as advanced frame of landscape all the while. All have done until now were maintaining lots of fortress including Gyeongju and setting night landscape lighting for them or building a trail in mountain fortress. Hereupon, this study tried to take a look at historical and scenic value of fortress, landscape frame of Gyeongju-Silla capital, based on Wolseong and Myeonghalseong and find the way to contribute to it on landscape architectural level.

As Wolseong(月城) and Myeonghalseong(明活城) functioned as royal palace in Silla Dynasty, they need some research and study on fortress inside in detail rather than restoring them by simply maintaining the shapes. While Wolseong has overall excavation investigation going on, Myeonghalseong representing mountain fortress area is losing its value due to unbecoming management to a title of world heritage. If conducting close research and study on these remains, it seems like it could contribute a lot to landscape architectural research of Silla royal palace through tracks, which will be used as royal palace.

Here I suggest research direction on landscape architectural level about fortress remains in Gyeongju area as followings.

Firstly, away from all research focusing on fortress shape, consecration way, etc, we need to conduct a research comprisable of inner space of fortress. As Wolseong and Myeonghalseong functioned as royal palace in Silla Dynasty, it'll be possible to research about ponds, Nu-Jeong(樓亭), drainage facilities, oddly shaped stones, moundings, pavements, circulation systems, planting traces, etc. For this, we need to research and study through comparison with cases of China, Japan and Goguryeo of the same age.

Secondly, applying garden archaeological way is possible to translate objectively regarding research of ancient garden with low literature record. But attainable achievement and information will be limited if implementing excavation based on archaeology as excavations so far regarding excavation investigation of Wolseong. The alternative to such problem is participation plan of landscaping field through the foundation of garden archaeology. We might be able to attain many results on landscape architectural level from research, if conducting research and study about Silla capital including Wolseong by applying garden archaeology such as collection of environmental sample and discovery and analysis of remains through aerial photograph, archaeological research, analysis of historical building, surface exploration, excavation technique, analysis of soil and flowerpot, etc. For this, many people majored in landscape architecture need to try and acquire archaeological knowledge. Also, we need to call attention to internal garden archaeology through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by inviting global experts in garden

\*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신라왕경의 조경공간 연구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Ahn, Gye-Bo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 712-702, South Korea, Phone: +82-53-850-3190, E-mail: gbahn@cu.ac.kr

archaeology field.

I've suggested the study of location of Wolseong and Silla fortress in Gyeongju area, plan research on using and treating trees about the space in and out of fortress and landscape architectural research direction of Wolseong fortress.

*Key words: Ancient Garden, Garden Archaeology, Myeonghwalseong, Wolseong*

## 국문초록

신라왕경 경주는 그동안 고도의 경관골격으로서 성곽에 대한 가치에 관심이 부족했다. 경주를 포함한 많은 성곽들은 정비하여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거나 산성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이 그간의 방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라왕경 경주의 경관골격인 성곽에 대해 월성(月城)과 명활성(明活城)을 중심으로 역사적·경관적 가치를 살펴보고 조경학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월성과 명활성은 신라시대 왕궁으로 기능하였던바 단순히 외형적 정비만을 통한 복원보다는 성곽 내부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월성의 경우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시행중에 있지만 산성지구를 대표하는 명활성은 세계유산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관리로 인해 그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이들 유적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왕궁으로 사용될 당시의 흔적을 통해 신라 왕궁의 조경사적 연구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지역 성곽유적에 대한 조경학적 차원의 연구방향으로는 첫째, 그동안 성곽의 형태와 축성방법 등에 치중한 연구에서 벗어나 성곽 내부공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월성과 명활성의 경우 신라시대 왕궁으로 기능했던바 원지, 누정, 수구시설, 괴석, 조산, 포장, 동선체계, 식재흔적 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교 대상으로 동시대의 중국, 일본, 고구려의 사례와 비교를 통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정원고고학적 방법의 적용은 문헌기록이 빈약한 고대정원 연구에 있어서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월성발굴조사에 있어 지금까지의 발굴처럼 고고학 중심의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얻을 수 있는 성과와 정보가 제한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정원고고학의 토대를 통한 조경분야의 참여방안이다. 항공사진, 고고학적 조사, 역사적 건물 분석, 지표면 탐사, 발굴기법, 토양 및 화분분석 등을 통한 환경시료 채취, 유적 발견과 분석과 같은 정원고고학의 적용을 통해 월성을 포함한 신라왕경의 조사 및 연구에 활용한다면 조경학 차원의 많은 연구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경학 전공자들의 고고학적 지식습득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정원고고학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를 초청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한 국내의 정원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기타 월성과 경주지역 신라 성곽의 입지 연구, 성곽 내외 공간에 대한 수목 활용 및 처리방안 연구, 월성 해자의 조경학적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고대정원, 명활성, 월성, 정원고고학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의 시대가 도래 한 현대에 이르러 세계는 국가 정체성 확립과 이를 통한 관광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라왕경(新羅王京)<sup>1)</sup>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1천여 년을 왕도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각종 규제에 의해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되는 등 도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비슷한 역사를 가진 세계의 고도(古都)들에 비해 역사도시로서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발굴조사는 대부분 조사 후 해당 유적을 복토하여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대로 된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발굴조사된 유적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경주는 그저 거대한 고분만 남아있는 역사속의 도시로서 인식되어 오고 있다.

현재 경주를 대표하는 신라시대의 유적인 불국사와 석굴암, 대릉원, 첨성대 등 일부 물리적 실체가 남아있는 유적만을 활용하여서는 경주가 가진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으며, 이는 경주가 가진 잠재력에 비해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라왕경의 원형 경관적 측면에서 경주에 산재한 성곽유적은 고분과 폐사지로 대표되는 경주의 이미지를 신라왕경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고도의 이미지

로 전환할 수 있는 유용한 유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주지역에 산재한 성곽유적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편으로 제대로 된 정비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광객들 또한 월성을 주된 역사문화자원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월지, 첨성대 등을 이어주는 통로로서만 이용하고 있어 옛 궁성터의 역사적 활용 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모호한 편이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경주시는 2025년까지 총 9,450억원을 투입하여 월성복원을 비롯한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월성 발굴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졸속 발굴이란 우려 속에 현재 발굴작업이 한창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신라시대 경주지역의 성곽유적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우선적으로 월성과 명활성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신라왕경의 경관골격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보고, 원형경관 회복을 위해 조경학적 측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연구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신라 왕경의 경관골격을 이루는 성곽 중 월성과 명활성은 왕궁이 있었던 곳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으며, 각각 세계문화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월성지구와 산성지구로 지정되어있어 우선적인 연구와 정비가 시급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두 곳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경주지역에 산재한 성곽유적에 대해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현황과 가치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월성지구 산성지구로 대표되는 월성과 명활성에 대해 선행연구와 정비사업의 한계점 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조경학적 차원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신라왕경 성곽의 가치 및 현황

## 1. 성곽의 가치

2000년 경주는 '경주역사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유적의 성격에 따라 모두 5개 지구로 분류되는데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왕릉을 비롯한 고분 밀집지역인 대릉원지구, 신라불교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의 핵심인 산성지구이다(Figure 1 참조). 이중 성곽(산성)과 관련된 지구가 2개소이다. 월성지구는 궁성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신라 왕경의 핵심지역으로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명활성을 중심으로 하는 산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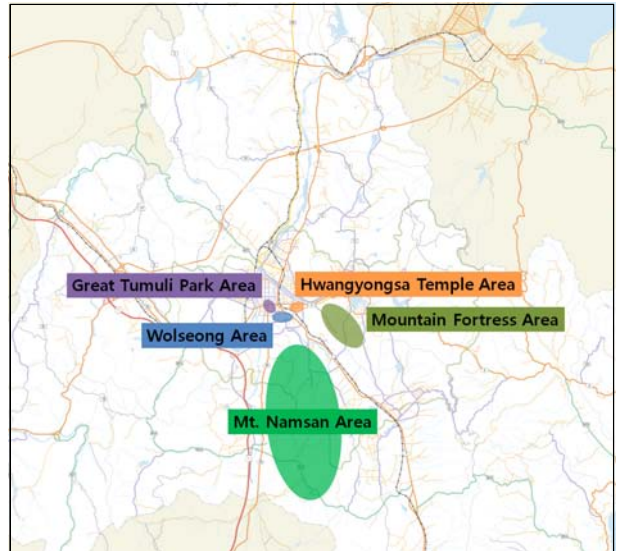


Figure 1. Gyeongju Historic Areas

구는 분지지형인 경주에 있어 왕경의 핵심을 구성하는 경관골격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주는 사방으로 명활산, 송화산, 남산, 소금강산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지형이다. 우리나라의 고대국가 대부분 그러했듯이 신라의 왕경인 서라벌 또한 이러한 지형을 활용해 산성을 구축한 성곽의 도시였다. 경주분지를 형성하는 주변의 산들은 신라 궁궐터인 월성으로부터 3~4km 이내에 위치하는데 이는 왕궁인 월성을 방어하기 위한 산성의 축조는 국가운영의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신라왕경의 경관형성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성곽의 나라'라고 할 만큼 산성을 중심으로 수많은 성곽이 있었으며, 분지 지형인 경주 또한 신라 때부터 많은 성곽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성곽은 '천년고도 경주'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궁성'과 '성곽'의 이미지를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존재하지 않아 경주 신라왕경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도 경주의 경관적 가치 측면에서 점적인 요소와 함께 선과 면적인 요소가 결합된 성곽은 신라왕경으로서의 경관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2. 성곽의 현황

경주는 약 1,000년 간 신라의 수도로서 기능하여 왔다. 초기 단계 신라의 성곽은 낮은 구릉 위나 야산 정상부에 축조되었는데, 궁성인 월성과 가까운 남산과 명활산에 토성을 구축하고 군사를 주둔시키다가 도성의 확장과 더불어 점차 외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사방의 교통 요지에 대규모의 산성을 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분지로 이루어진 지형여건

상 방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왕경의 방어는 당연히 산성 축성으로 나타났다. 신라는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나성(羅城)은 만들지 않았으나 분지지형을 이용하여 산성을 축성하였으며 나성의 역할을 대체하였다[3]. 왕도가 위치한 경주분지 지역 동쪽에 명활성, 남쪽에 남산성, 서쪽에 서형산성을 외곽지역에 여러 산성을 두어 이중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주지역의 성곽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의 문헌기록에서 총 10개소가 나타나고 있다. 문헌 기록에 의거할 때, 경주 지역의 신라시대 성곽들은 월성과 명활성이 상고기에 축조되었고, 남산성과 서형산성, 고허성은 중고기에, 그리고 부산성과 북형산성, 모벌군성은 중대에 들어와 축조된 것으로 나타난다[4].

한편 현재 경주 지역에서 확인된 성곽은 모두 22개소에 이른다[5]. 그 중 신라시대에 축조된 성곽은 14개소이다(Table 1 참조).

위의 14개소의 성곽 중에 경주분지(왕경)에 위치하는 것이 6개소인데, 이는 왕경지역의 월성과 인접한 곳에 성곽이 집중

되었음을 보여준다. 월성의 남쪽에 성곽이 집중되어 있고 북쪽은 성곽의 흔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왕경 외곽지역의 북쪽에서는 성곽이 위치하는데 반해 왕경지역의 북쪽에 성곽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4].

### 3. 월성과 명활성에 관한 선행연구

#### 1) 월성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1) 월성의 연구 성과

지금까지 신라왕경과 월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월성자체에 대한 연구는 몇 편에 지나지 않고[4][5], 대부분 신라왕경의 도성체를 연구하면서 월성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복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실정이다[6-9]. 이와 같이 월성자체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연구 성과에 대한 진전이 없으며, 초기기록의 신빙성 여부를 놓고 월성의 위치비정에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1. Silla Dynasty Castles in Gyeongju Existing

Name	Location	Location Requirements	Form	Construction Type	Length	Construction Time
Wolseong (月城)	Inwang-dong Gyo-dong	Riverside Hill	-	Soils	2.4km	Three Kingdom Period
Myeonghwalseong (明活城)	Cheongun-dong	Mountain Area	Including Valleys Type	Soils+ Stones	left length: 3.6km right length: 4.5km	Three Kingdom Period
Dodangsantoseong (都堂山土城)	Inwang-dong	Low Hill	-	Soils	1km	Three Kingdom Period
Namsantoseong (南山土城)	Inwang-dong	Low Mountain	-	Soils	1.2km	Three Kingdom Period
Namsansinseong (南山新城)	Inwang-dong Tap-dong	Mountain Area	Including Valleys Type	Stones	3.7km	Three Kingdom Period
Seohyeongsanseong (西兄山城)	Seoak-dong	High Mountain	Mixed Type	Stones	2.9km	Three Kingdom Period
Jakseong (鵲城)	Geoncheon-eup Daegok-ri	Low Hill	Including Valleys Type	Soils	2.1km	Three Kingdom Period
Busanseong (富山城)	Geoncheon-eup Songseon-ri	High Mountain	Including Valleys Type	Stones	7.5km	Three Kingdom Period
Goheoseong (高墟城)	Naenam-myeon Yongjang-ri	High Mountain	Including Valleys Type	Stones	3.6km	Three Kingdom Period
Yangdongriseongji (良洞里城址)	Gangdong-myeon Yangdong-ri	Mountain Area	Temoe Type	Soils	900m	Three Kingdom Period
Guseong (龜城)	Angang-eup Yangwol2-ri	Low Hill	-	Soils	2.1km	Three Kingdom Period
Bukhyeongsanseong (北兄山城)	Gangdong-myeon Gukdang2-ri	Mountain Area	Temoe Type	Soils (+Stones)	750m	Three Kingdom Period Unified Silla
Gwanmunsanseong (關門城)	Oedong-eup Mohwa-ri	Mounain Valley	Great Wall	Stones	10.9km	Unified Silla
Sindaeriseong (新垆里城)	Yangamm-yeon Sindae-ri	High Mountain	Including Valleys Type	Stones	1.8km	Unified Silla

Source: [3]

최근 들어 월성주변 발굴조사를 토대로 유구와 유물을 분석한 연구는 월성의 초축 연대를 살피는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들은 단일유구만을 대상으로 삼아 월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제한된 사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월성의 구조와 변천을 파악한 연구가 있었다[10].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월성 전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의 진전에 한계가 있으며, 발굴조사를 통한 자료의 축적과 이 자료의 편년과 시대별 궁궐의 배치양상과 변천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2) 월성에 대한 조사

경주 월성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인 조사는 세키노 다다시에 의해 1902년 수행되었다. 조사의 목적은 한일병합 이전에 일제 침략정책에 자료가 될 수 있는 정보 수집이었으며 간략한 현황만 조사하였다. 도리이 류조는 한국의 선사시대 유적 조사와 한국인의 신체측정을 목적으로 1914년 고고학적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1917년 조사 또한 월성축조 이전의 선사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후지타 료사쿠, 우메하라 스에지, 고이즈미 아키오는 1922년 경상도, 충청남도 유적을 조사하면서 도리이 류조가 발굴한바 있는 월성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경주고적보존회 진열관 소장 유물과 비교하여 그 성질과 특징을 기술하였다. 1929년 후지시마 가이지로는 경주의 도성지와 사지를 조사한 최초로 월성에 대한 사적(史的)을 고찰하였다. 후지시마는 월성 건물의 명칭이 중국 궁성 건축제도와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월성 역시 중국의 궁성과 마찬가지로 조방제(條坊制) 내에 속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아리미쓰 교이치는 도리이 류조의 2차례에 걸친 월성 발굴 자료들을 섭렵하고 토기의 발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다.

1979~1980년에 수행된 동문지조사는 해방이후 월성에 대한 최초의 고고학적 조사이며, 성벽 출입을 위한 문지, 성벽을 쌓은 석축의 양상, 석축해자의 존재 등이 확인되었다[11].

1984~1985년에 수행된 시굴조사는 1982년 7월 경주대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월성 외곽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해자의 규모 및 형태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결정하는 동시에 월성해자 정비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84년부터 1985년까지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 해자의 대체적인 규모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한 성과이며, 해자의 기능 상실 후 통일신라 건물지가 들어섰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수혈유구, 조선시대 유구 등도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 기와, 청동기, 철기, 자기, 목재, 목간, 인골, 곡옥, 골기 등 다양하였다[12].

1985~1989년 수행된 발굴조사(1기)는 월성해자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로 1985년 9월 5일부터 1989년 12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약 4년 동안 진행되었다. 1~3차 조사결과 석축해자, 다수의 건물지, 석교지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어 단순 유적

으로서의 해자조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12].

1990~1995년의 발굴조사(2기)에서는 수로유구, 추정 출입 시설과 적심건물지로 침성대 남편 건물지(1992년), 월성 북서편 건물지(1994년)가 확인되었는데 대체로 정면 다칸, 측면 다칸의 구조였다. 또한 관 또는 군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굴립주 건물지가 확인되었다[12].

발굴조사 3기(1999년~현재) 및 지표조사에서는 해자 내부에 대해 보다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 월성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월성 내외의 유적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가 일부 이루어졌으며, 황남동 123-2번지 조사(2006~2007)를 통해 1988년~1989년 조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계림 북편 건물지의 전체 배치 및 성격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12].

한편, 월성 정밀측량, 월성 지하 레이더(GPR) 탐사, 월성 지형연구, 식생환경 연구, 성벽 안전성 조사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월성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발굴조사에서 벗어나 다양화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2) 명활성에 대한 연구 및 조사

명활성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ee(1980)는 명활성 조사에서 석성(石城) 외에 토성(土城)의 흔적을 확인하여 석성을 내성(內城), 토성을 외성(外城)으로 구분하고 [13], 명활성을 내·외성을 갖춘 나성으로 보고 왕경의 동쪽에서 왜구들의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을 가졌다고 결론지었다. 명활산성작성비와 관련하여 명문을 재검토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며[2][14], Kang(1992)은 명활성은 왕경과 관련하여 최초로 축조된 산성으로 중요하며, 명활성이 축조된 후에는 서라벌이 공격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고, 신라왕경이 동쪽으로 확장되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15]. Shin(2004)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명활성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16]. Kim *et al.*(2011)은 경관적인 측면에서의 명활성을 연구 하였는데[17], GIS를 이용한 시곡면과 누적이기도 분석을 이용하여 명활성에 대한 조망 확보를 위한 산림경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산성의 복원 및 정비에 있어서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산림경관 정비 구역 설정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1990년에는 명활성 긴급발굴조사, 2008년에는 명활산성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3년 명활성 북문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 3) 선행연구의 종합 및 한계

지금까지의 성곽연구는 역사학, 고고학적 측면에서 성곽의 축조시기, 지리적 위치와 크기, 형태, 축성방법, 왕경 방어로서의 의미를 다룬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는 고도의 경관골격으로서 성곽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기가 어려우며 성

과 그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성곽은 입지환경, 지형 등과 관련이 높으며 내부의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다. 특히 성곽유적의 훼손이 심한 유적일수록 이러한 점은 두드러진다. 현존하는 시각적인 유구가 대부분 석재인 까닭으로 성곽은 조경분야의 연구영역에서 멀어져간 감이 있다. 고고학분야에서의 발굴조사와 건축분야에서의 정비를 바탕으로 한 고고학, 건축학분야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조경분야는 성곽의 연구보다는 야간 조명, 탐방로 설치 등에 관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와 함께 월성, 명활성과 같은 고대 성곽들은 문헌과 같은 연구자료의 한계로 인해 조경학적 연구의 제약이 있다.

### Ⅲ. 신라왕경의 경관골격으로서 월성과 명활성

#### 1. 신라왕경의 경관골격으로서 성곽유적

신라왕경은 경주분지 지역에 입지하였으며, 왕경 방어를 위한 성곽(산성)이 다수 축성되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현재는 유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성곽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신라 당시에는 이러한 성곽들이 사찰과 더불어 왕경을 대표하는 주요한 경관요소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현재 거대한 고분군들로 대표되는 신라왕경의 이미지는 흡사 무덤의 도시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고분의 분위기에 압도당한 신라왕경의 이미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왕경의 주요 경관요소로는 국가의 중심인 왕궁과 사찰, 왕경방어의 핵심인 성곽을 들 수 있다. 이중 수많은 성곽(산성)은 분명 왕경의 핵심시설이지만 그동안 우리의 관심에서는 배제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라왕경 복원에 있어 성곽은 반드시 재조명 되어야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2. 월성

##### 1) 월성의 가치

삼국통일을 기점으로 신라왕경의 규모도 확장되어 갔다. 궁성인 월성의 범위 또한 더욱 확장되는 등 왕궁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곽도 외곽으로 확장되고 규모가 커졌으며, 재료도 토성에서 석성으로 변화해 갔다. 이 시기에 신라왕경은 월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면으로 명활성, 서형산성, 남산신성과 고허성, 북형산성이 축조되었다. 그 후에도 왕경방어를 위한 축성은 계속 이어지며 확장되었는데, 서쪽은 건천지역에 부산성을 축조하였고, 동남쪽은 외동지역에 신대리성과 관문성을 축조하였다.

월성의 경우 왕궁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월성 해자는 방어 기능이 쇠퇴하고 조경으로서의 기능이 중시되었다. 이는 해자가 설치된 구역은 이미 왕궁영역 내에 들어있음을 의미한다. 해자의 외부가 왕궁영역으로 들어왔음은 동궁의 조성으로 알 수 있다. 신라는 통일 후, 월성 동북쪽 일대를 대상으로 왕궁의 원지를 조성하였다. 월성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 원지와 동궁을 건설한 것은 기존의 월성이 상당한 범위까지 확장되었음을 나타낸다.

월성을 중심으로 한 왕궁영역의 확장은 외부공간을 다루는 조경학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침 2014년 12월부터 월성의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시행되어 추측이 난무하던 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다. 하지만 발굴 및 정비 시 지금까지의 흐름처럼 건물지의 외부공간에 대해 소홀히 넘어간다면 월성 복원·정비에 있어 조경학적 성과를 이루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신라왕경의 핵심인 월성에 대해 조경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2) 월성의 공간구성

월성의 물리탐사 결과를 분석하면 월성 내부의 전각배치는 남북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당의 궁궐 배치 원리를 도입하기 이전 고구려의 안학궁이나 초기의 사지에서 많이 적용된 『사기(史記)』의 「천궁서(天宮書)」에 나타나는 오성좌(五星座) 배치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18].

월성의 전각배치는 전체적으로 구릉지와 하천의 자연조건에 순응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제14구역의 대형 건물지는 지세와는 달리 동북에서 서남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서쪽 제2구역의 건물지는 규모로 보아 궁궐 내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전각으로 보이고, 제3구역 또한 여러 전각이 배치된 것으로 보아 중요한 공간으로 파악된다. 한편, 탐사결과 조정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이 2구역, 6구역, 7구역(Figure 2와 3, Table 2 참조)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제6구역은 인공 연못이 있었을 가능성과 주변의 여러 건물지들의 조합으로 볼 때, 궁내 의식이 행해지던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발굴조사에서 연지를 포함하여 전각의 외부공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특히 이번 월성발굴조사처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정원유적에 대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 궁궐 내의 외부공간에는 원지, 누정, 수구시설, 식재 흔적, 괴석, 조산, 포장, 동선체계 등 조경유적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지만 이번 발굴조사에서 이에 대한 유구를 확인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 3. 명활성

##### 1) 명활성의 가치

명활성은 지형상 동해안에서 왕경으로 접근하는 길목을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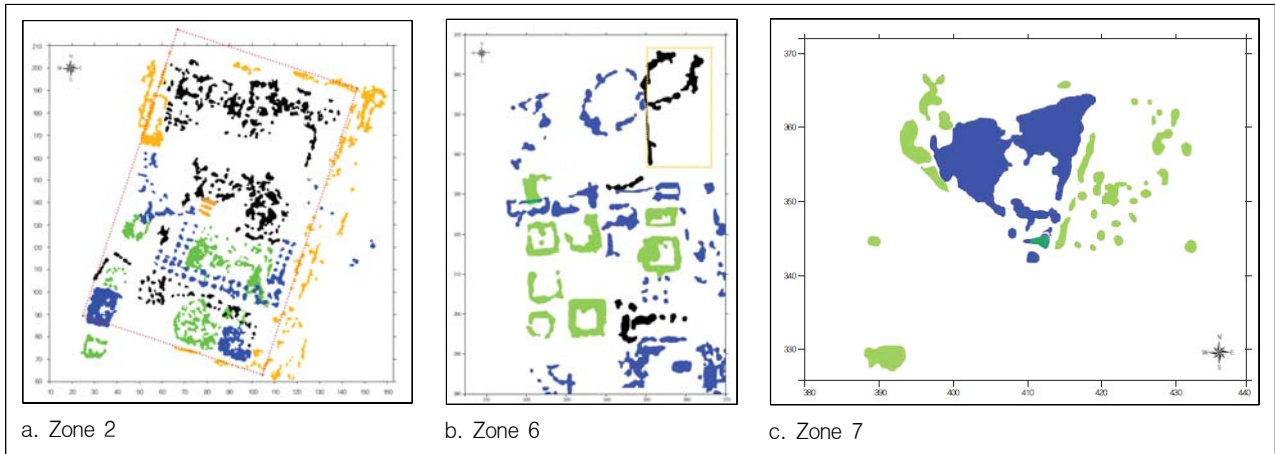


Figure 2. Exploration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Wolseong  
Source :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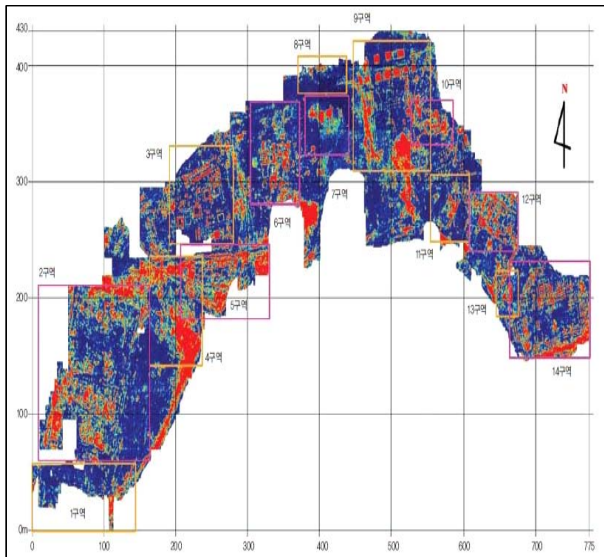


Figure 3. Zoning by Eternal Distribution Situation  
Source: [19]

Table 2. Configuration Space of Wolseong

Division	Designation
Palace Buildings	Namdang, Pyeonguijeon, Jwonjeon / Sungryejeon, Imhaejeon / Naehwangjeon, Woljeongdang / Seoranjeon / Gangmujeon
Gatepavilions	Myeonghakru, Wolsangru, Mangeunru, Goru
Palace Gate	Mupyeongmun(North), Gwiyeongmun(West), Junryemun(South), Jeokmun
Storage	Cheonjongo

Source: [20], Rewritten by the author

어하는 요충지로서 왕경 근처에서 가장 빠른 경로로 형산강을 거슬러 올라와 현재의 보문단지로 이어지는 길이며, 명활산을

마주보며 오게 된다. 또한 명활산은 외적이 동해안의 문무왕릉 쪽으로 침입하였을 경우, 토함산 북쪽으로 접근해 들어올 때 마주치게 되는 곳으로, 왕경과 가까우면서도 조망이 좋고 동북 쪽의 방어에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동쪽으로는 동해가 가까워서, 이곳으로 자주 침략하던 왜구들을 막기 위해서는 토함산이나 명활산에서 방어를 해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명활성은 신라왕경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하던 중요한 성곽이었다.

자비마립간이 13년 동안이나 이곳에 거처하며 궁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이나, 비담과 염종이 이 성곽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실을 볼 때 신라의 다른 성곽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는 사실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16]. 이처럼 명활성은 왕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신라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산성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월성과 함께 신라왕경 지역의 성곽 중 우선적인 연구와 복원·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명활성의 공간구성

명활성은 경주분지 동쪽의 명활산(259m)을 둘러싼 포곡식 산성이다. 행정구역상 보문동과 천군동에 속해 있고, 현재 사적 제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석성과 토성으로 이루어진 성곽이었으나 현재는 석성부분만 사적으로 지정 되어있다. 성벽은 대부분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1990년 북쪽 성벽 일부구간을 긴급발굴조사를 거쳐 복원·정비하였다(Figure 4 참조).

성벽은 정비된 북쪽 성벽과 2013년 발굴조사를 마친 북문지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성벽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북서쪽, 북동쪽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성벽은 거의 폐허 상태로 남아있다. 명활성은 전체적으로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로 있으나 많은 구간에서 성벽의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성벽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구간은 북쪽 건물지·장대지의 좌우측 구간, 북동측의 문지 구간, 남문지 구간, 장군봉 서측

등에서 성벽의 흔적이 발견된다.

문지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7개소가 있었으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곳은 없었는데, 2013년 발굴조사에서 북문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문지, 치성, 석축 구조물이 조사되었으며, 반원형의 치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라 성곽인 삼년산성, 고모산성에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신라 성곽의 형식을 보여 준다.

못은 명활성 내에 2개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10×8m 규모와 31×23m 규모이다. 특히 장군봉의 못은 현재도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다. 2007년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상기 2개소 외에 1개소의 못 추정지를 발견하였다고 하였는데, 흰등산 못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m 지점에 물이 용출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에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수구시설은 성 내에 7개소가 있다고 하였으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5개소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북쪽의 성벽 붕괴 부분 안쪽에 대한 조사에서 집수시설이 된 구조로 밝혀졌다.

건물지의 경우 지형이 평탄하고 신라시대 와편과 토기가 발견되어 건물지로 추정된 것으로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초석이 확인된 건물지는 1개소가 있으나 나머지 건물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신라시대 임시왕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에 걸 맞는 대규모의 건물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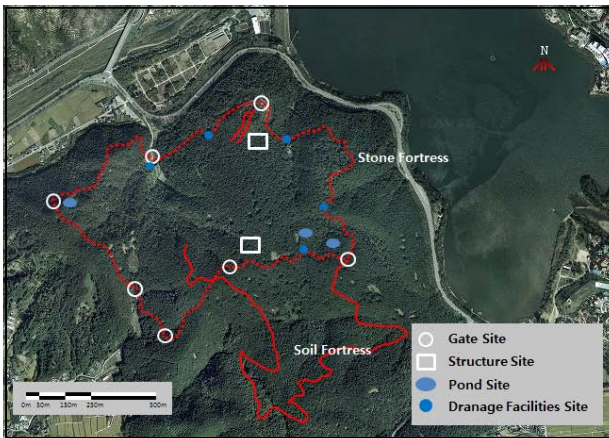


Figure 4. Map of Myeonghalseong

#### Ⅳ. 조경학적 자원의 연구방향 제안

기존의 성곽관련 연구들은 축조시기, 지리적 위치와 크기, 형태, 축성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고, 신라 성곽의 경우 왕경의 확장과 방어에서 갖는 산성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고고학, 건축분야에서

성벽 복원·정비를 중심으로 행해지던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었다. 이와 더불어 발굴조사 등이 병행되었으나 월성과 명활성 모두 성 내부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발굴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곽의 축성연대, 축성법 등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월성과 명활성이 신라의 궁성으로 기능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성 내부의 공간구성과 당시의 경관을 구명하는 것은 해당 유적뿐 아니라 신라왕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복원·정비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성곽은 단순히 성벽에 대한 외형 정비 뿐 아니라 주변 경관이나 형태를 결정했던 산림까지 함께 검토하고 연구하여야 성곽의 본 모습이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조경학 차원에서 성곽에 대한 연구전략 수립 시 고고학, 고건축 전문가와 함께 성곽이 가질 수 있는 경관적, 활용적 측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적지에서 조경학분야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기반조성, 정자, 화계, 연못, 조산(造山), 포장, 수목, 괴석 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엽적인 부분이며 실제 사적지 내의 건축물을 제외한 외부공간 전체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에서 언급한 세부적인 조경요소와 외부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 모두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문화재 보존은 점적보존에서 면적보존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건축물 몇 개 복원하는 시대에서 그 외부환경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몇몇 점적인 단위의 유적 복원만으로는 역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점적단위의 외부공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공간은 조경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경주 신라 성곽에 대한 문헌(고문헌 포함) 및 도면,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한 정리와 해석 등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신라왕경 성곽의 역사문화환경 복원·정비를 통하여 지속적인 왕경의 경관에 대한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경주지역에 산재한 성곽은 신라 왕경의 주요한 구성요소이자 경관요소임에도 역사도시 경주라는 이미지에서 배제되어 왔다. 경주지역 성곽의 복원 및 정비는 매력적인 고도 경주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성곽 외에 현존 또는 소멸된 성곽의 정비 및 복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이며 신라왕경의 조경공간으로서 산성의 연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월성의 공간구성 및 외부공간 연구 - 한·중·일 비교

그동안 성곽유적의 경우 성곽의 형태와 축성방법 등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물론 성곽 자체도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성곽을 둘러 보호하고자 하였던 내부 공간에 또한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왕궁은 그 장대한 규모로 인해 권역별로 그 성격이 다르다. 현재는 문헌 속의 단편적인 기록에 의해 상대적인 위치와 공간구조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대 중국의 당, 일본 나라 및 고구려 왕궁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월성 내 궁궐의 위치 및 구조를 파악하여 월성의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월성의 경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되면서 그 동안 추정해 머물렀던 월성 내외부에 대한 조사 성과가 기대된다. 월성이 신라 제1의 왕궁이었던 만큼 왕실의 정원(원지, 누정, 수구 시설, 식재, 괴석, 조산, 포장, 동선체계 등)에 대한 단서 또한 발견될 것이다. 그간 건물지 외부에 대한 조사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소홀하여 많은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면이 있었다. 따라서 동시대 유사 유적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원유적으로 의심되는 곳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기록에 나타나는 정전, 편전, 침전, 누각, 문 등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외조, 치조, 연조 권역을 구명하고, 위치와 성격을 문헌자료와 비교·검토하여 2014년 12월부터 실시되는 월성 발굴조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정보들을 참고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왕궁으로서 월성의 경관과 내부 건물 구조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명활성의 경우 월성과 더불어 왕궁으로 사용되는 등 조선시대 행궁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동시대의 신라 성곽에 대한 비교·검토와 더불어 현재 유적과 자료들이 풍부한 조선시대 산성의 행궁과 비교하여 당시 공간구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명활성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면모를 밝히는데 제약이 많지만 신라의 여러 산성 중 그 중요도가 크므로 본격적인 정비사업과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 2. 월성, 명활성의 고고학적 조사에 있어 경관고학(정원고고학)의 적용 방안 연구

역사정원에 대한 해석은 조경사학자, 미술사학자,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역사정원에 대한 옛 그림, 문헌자료에 의존한 해석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정원을 그린 그림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가지며, 문헌자료들은 주관적이고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객관적인 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원고고학적 조사는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21].

특히 월성의 경우에는 그림 자료가 전무하고 문헌자료 또한 단편적인 기록이 전부이기 때문에 고고학적 조사 결과에 의존하는 비중이 어느 유적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고학적 조사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월성발굴조사에 있어 지

금까지의 발굴처럼 고고학 중심의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얻을 수 있는 성과와 정보가 제한 될 것이다. 그동안의 여러 발굴조사의 사례를 보면 대개 고고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과연 한 나라의 문화와 기술이 집약된 왕궁유적을 고고학 전공자만으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월성 발굴조사와 맞물려 2014년 12월 4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연구원 채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채용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그만큼 월성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전체 21명의 연구원 채용공고 중 ‘월성’ 분야에만 총 11명의 채용계획을 발표했는데 고고학 6명, 고건축 2명, 3D 스캔 1명, 보존과학 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인력 운용계획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월성의 정원유적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고학적 조사연구는 과거 인간사회의 이해를 위하여 유물, 유적 등 고고학적 현상을 시간과 공간상에 배치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유물·유구의 형식 분류와 편년, 분포도 작성 및 분포패턴 분석, 토기제작·의례행위 복원 등 거의 모든 고고학적 연구 성과는 시·공간 정보를 활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22].

유적의 발굴조사는 고고학분야에서 담당하며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발굴조사가 이들 고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굴조사에 있어 고고학자가 주축이 되어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반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고고학을 전공한 고고학자라 할지라도 당시의 문화와 사상 등이 결집된 유적을 조사하고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역사학 전공자, 건축사 전공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최근의 많은 유적들이 조사·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원유적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조경분야에서 발굴조사에 참여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 말은 정원유적을 포함한 조경관련 유적은 발굴조사 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비 조경전공자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 시간에 맞추다 보니 조경유적은 신경 쓸 여유가 없고 조경유적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정원고고학의 토대를 통한 조경분야의 참여방안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정원고고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다.

항공사진, 고고학적 조사, 역사적 건물 분석, 지표면 탐사, 발굴기법, 토양 및 화분분석 등을 통한 환경시료 채취, 유적 발견과 분석과 같은 정원고고학의 적용을 통해 월성을 포함한 신라 왕경의 조사 및 연구에 활용한다면 조경학 차원의 많은 연구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경학 전공자들의 고고학적 지식습득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정원고고학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를 초청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한 국내외 정원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 3. 기타 조경학 차원의 연구방향

1) 월성과 경주지역 신라 성곽의 입지(가시권 분석) 연구  
과거에는 국가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외부로 부터의 방어, 즉 성곽의 축성이었다. 각 지역별 요충지에는 성곽을 축성하여 대비토록 하였다. 이러한 성곽의 목적은 가시권 확보로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감시와 방어를 일차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성곽의 입지는 교통의 요지 또는 가시권이 확보되는 입지여야 한다. 이러한 성곽의 활용과 입지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가시권을 분석하고 고대의 도로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지역 성곽과 도로망의 관계를 구명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고지도, 문헌자료, 지명, GIS분석 등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이용하여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2) 성곽 내외 공간에 대한 수목 활용 및 처리방안 연구  
월성과 명활성의 복원·정비의 수준에 따라 수목 처리방안은 달라질 것이다. 월성은 현 식생조사와 과거 식생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명활성의 경우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래종 등의 수목을 선별하고 성곽의 기능과 경관적 측면 등 문화재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수목을 제거 또는 이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월성 해자(구지)의 조경학적 연구  
월성 밖을 둘러싼 해자의 존재가 발굴조사로 밝혀졌다. 해자 하면 보통 군사적인 방어시설로 보아왔지만 월성의 경우에는 조경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발굴조사결과 해자로서의 기능을 하던 시기는 5세기 후반~7세기 후반으로 보여진다. 월성 해자는 기타의 해자와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라 당대에 해자로 사용되다 용도가 폐기되었다는 점 둘째, 해자의 여러 부분에 못을 파고 도랑으로 연결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화랑세기』에서는 이 해자를 구지(溝池)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도랑과 못을 말하는 것으로 월성 해자는 이처럼 기타 해자와는 다른 특수성이 발견된다. 따라서 월성 해자(구지)의 특수성과 조경적 가치, 원지로서의 기능 등을 한·중·일 고대 해자와의 비교를 통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 V. 결론 및 제언

신라왕경 경주는 그동안 고도의 경관골격으로서 성곽에 대한 가치에 관심이 부족했다. 경주를 포함한 수많은 성곽들은 그저 정비하여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거나 산성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이 그간의 정비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신라왕경 경주의 경관골격인 성곽에 대해 월성과 명활성을 중심으로 역사

적·경관적 가치를 살펴보고 조경학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월성과 명활성은 신라시대 왕궁으로 기능하였던바 단순히 외형적 정비만을 통한 복원보다는 성곽 내부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월성의 경우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시행 중에 있지만 산성지구를 대표하는 명활성은 세계유산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관리로 인해 그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이들 유적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왕궁으로 사용될 당시의 흔적을 통해 신라 왕궁의 조경사적 연구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지역 성곽유적에 대한 조경학 차원의 연구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그동안 성곽의 형태와 축성방법 등에 치중한 연구에서 벗어나 성곽 내부공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월성과 명활성의 경우 신라시대 왕궁으로 기능했던바 원지, 누정, 수구시설, 괴석, 조산, 포장, 동선체계, 식재흔적 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교 대상으로 동시대의 중국, 일본, 고구려의 사례와 비교를 통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정원고고학적 방법의 적용은 문헌기록이 빈약한 고대 정원연구에 있어서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월성발굴조사에 있어 지금까지의 발굴처럼 고고학 중심의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얻을 수 있는 성과와 정보가 제한될 것이다. 지금까지 발굴조사에서 조경유적은 신경 쓸 여유가 없고 조경유적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정원고고학의 토대를 통한 조경분야의 참여방안이다. 항공사진, 고고학적 조사, 역사적 건물 분석, 지표면 탐사, 발굴기법, 토양 및 화분분석 등을 통한 환경시료 채취, 유적 발견과 분석과 같은 정원고고학의 적용을 통해 월성을 포함한 신라왕경의 조사 및 연구에 활용한다면 조경학 차원의 많은 연구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경학 전공자들의 고고학적 지식습득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정원고고학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를 초청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한 국내의 정원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기타 월성과 경주지역 신라 성곽의 입지(가시권 분석) 연구, 성곽 내외 공간에 대한 수목 활용 및 처리방안 연구, 월성 해자(구지)의 조경학적 연구를 제안하였다.

월성은 지금까지 그 전모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궁궐로서 이번 발굴조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월성을 비롯한 경주지역 발굴조사에서 조경전문가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신라왕경의 외부공간에 대한 연구성과는 미흡하다. 이는 원칙적으로 조경분야의 참여가 제한된 발굴조사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조경학 전공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사실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서는 조경사에 대한 지식 외에

고고학, 한문, 역사 등 관련분야의 학문에 대한 관심과 공부  
필요하다. 발굴조사시 조경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하는 예산문제  
와 제도적인 문제를 타하기 전에 스스로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분야와의 교류 및 협업을 통해 성과  
유적뿐 아니라 기타유적의 조경학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주 1) '신라왕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공식적으로 문화재청과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용  
어를 사용하였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 신라왕경과 경주라는 용어  
를 혼용하였다.

## REFERENCES

- [1] Kang, T. H., Park, J. K., Pan, X. and Kim, S. G.(2011). Tourists' Historical Image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for Heritage Site at Wolseong Palace in Gyeongju.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4): 148-158.
- [2] Park, B. R.(1992). The Guard System in the Capital of Silla Dynasty. *The Journal of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9: 25-38.
- [3] Kim, C. H.(1999). Some Questions about the Silla Mt. Fortress in Gyeongju. *Gwagigogyongu*, 5: 23-34.
- [4] Kang, J. H.(2006). A Study on Silla's Defense System for the Capital. *Proceedings of the Silla Cultural Festival*, 27: 1-21.
- [5] Kang, J. H.(2004). A Research and Study on the Castle Remains of Old Silla in Daegu-Gyungbuk Area. *Daegu Sahak*, 77: 1-39.
- [6] Fujisima, G.(1930). A Study on the Architecture History of Joseon.
- [7] Min, D. S.(1986). Study on Urban Design and Operation of the Silla Capital. *Baeksanhakbo*, 33: 9-62.
- [8] Min, D. S.(1987). A Study on the Defense of the Silla Capital.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39: 29-102.
- [9] Min, D. S.(1989). The Trial Study about City Planning of Capital of the Silla Dynasty. *Sachong*, 35: 31-74.
- [10] Yeo, H. K.(2014). Internal Structure of the Shilla Royal Palace, and the Arrangement of Spaces for State Affairs and Rituals, in the 6th ~8th Centuries.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94: 33-74.
- [11] Jang, K. H.(1996). *Traditional Architecture of Korea*. Seoul: Munye press.
- [12]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10a). *Basis of the Research Report about Gyeongju Wolseong 1*. Gyeongju: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13] Lee, W. K.(1980). *Study of Castle Wall Three Kingdom Period*. Doctorate Thesis of Dangoon University.
- [14] Min, D. S.(1992). A Study on the Myung-Hwal-Sung Monument of Silla Dynasty in Kyung-Joo. *Dongbanghakji*, 74: 75-154.
- [15] Kang, J. W.(1992). On the Formation of the Silla Wangkyong. *The Paekche Yonku*, 23: 203-242.
- [16] Shin, S. J.(2004). *A Study on Castle of Mt. Myeonghwal*. Master Thesis of Yeungnam University.
- [17] Kim, C. S., Lee, J. Y. and Kim, Y. M.(2011). A Study on the Surveillance System and the Location of Fortress of the Sil-la Dynasty by a Cumulative Visibility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3): 12-21.
- [18]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13a). *Comprehensive Report of Policy Research on the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about Gyeongju Wolseong 2*. Gyeongju: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19]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10b). *Basis of the Research Report about Gyeongju Wolseong 3*. Gyeongju: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20]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13b). *Comprehensive Report of Policy Research on the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about Gyeongju Wolseong 4*. Gyeongju: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21] Currie C.(2005). *Garden Archaeology*. York: Council for British Archaeology.
- [22] Jeong, H. J. and Kang, D. S.(2010). GIS and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patial Information. *Yaeogogohak (Outdoor Archaeology)*, 9: 153-197.

원 고 접 수 일: 2015년 3월 02일

심 사 일: 2015년 3월 13일(1차)

2015년 3월 19일(2차)

게 재 확 정 일: 2015년 3월 19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